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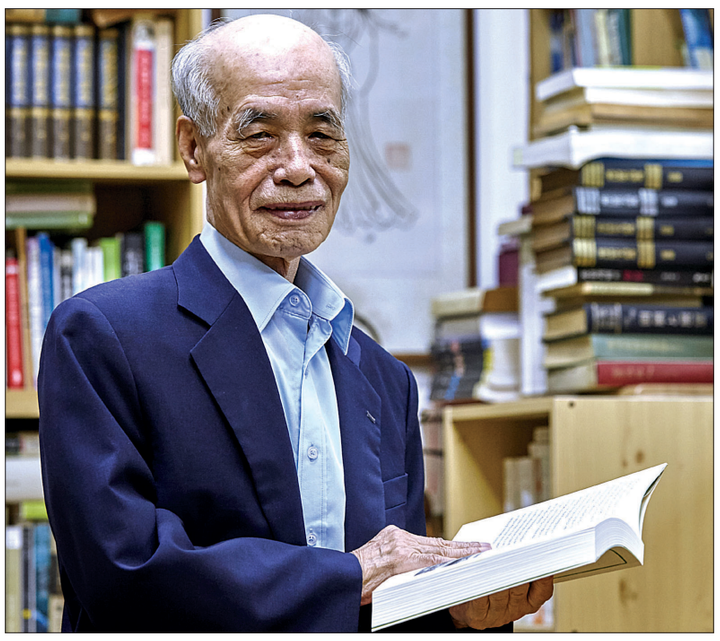
이번주 신간은… **〈스님의 남자친구〉** 글 일광 스님/그림 손정은/불교신문사 펴냄/1만원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일광 스님은 올해부터 복지관 어르신 대상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펴낸 산문집 〈스님의 남자친구〉는 대부분 스님이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이다. 그 분들이 걸어온 빛바랜 삶이 스님과의 인연으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사연들이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저 있는 그대로 조물조물 무쳐 냈다는 저자의 말처럼 소박하고 따스한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7 ~ 8/23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윌리엄 하트	김영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바른 믿음의 불교	성엄선사	탐구사
4	그대는 꽃입니다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9	열반경 역해 (전3권)	이상규	해조음
5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스님의 남자친구	일광스님	불교신문사

우리는 '왜' 불교사를 읽어야 할까?



"불교가 국가 통치 시스템으로 작동한 삼국시대부터 신군부에 의한 수모를 겪었던 격동의 1980년대까지 한국불교사의 전반을 조망한 새로운 역사 교양서"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

이이화 지음/불광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역사를 가장 쉽게 풀어내는 재야학자' 이이화의 저서이다. 저자는 우리 불교사를 한국사 전체의 틀에서 통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특유의 이야기체로 풀어낸다.

그래서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 불교사를 한층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교사를 읽어야 할까?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문화와 사상의 측면은 물론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위치를 점령해왔다. 불교가 걸어온 길은 한국사 번외의 맥락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책 전체에 포진해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저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흐름 속에서 불교사를 조명한다. 그래서 불교사의 명과 암을 꾸밈없이 서술해나간다.

한국사서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 하나가 있다. 바로 불교사이다. 불교는 고대 고구려에 처음 전래되어 백제, 신라, 가야에 전해졌고, 고려, 조선에 이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온다. 그러나 그동안의 불교사에 대한 시각은 주로 사상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춰져온 점, 그리고 학술적인 측면으로 다뤄져왔다는 점으로 인해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불교가 지나온 유구한 세월을 이 책은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알지 못한 한국불교사의 민낯

불교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을 아주 일반적인 경우의 예 몇 가지로 살펴보자.

고대 삼국시대의 불교는 모든 계층이 섬기는 국가 종교이자 통치 이념으로 작동하며 강력한 왕권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일련의 흐름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고려시대 30여 년 동안 계속된 몽골과의 혹독한 전쟁에서도 민심을 모으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는 불교의 힘이 컸다. 그 증거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한편 억불의 기치 속에서도 왜란 당시 승군의 활동상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다. 특히 유정은 전쟁 이후에도 외교사절로 활동하며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를 송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조선 왕실에서 이러한 점을 높이 사 해남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고 제향하게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불교사에 이와 같이 빛나는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는 역사 속에서 부패와 정화를 반복했고, 존경과 핍박을 번갈아 받아왔으며, 시대에 참여하기도 시대를 외면하기도 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빛에 가려져 알 수 없던 어두운 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불교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한 가지는 고려 말 정치가들의 상소문서 살펴 볼 수 있다.

유학자인 당시 정치가들이 불교 배척 상소를 올린 것은 불교를 이단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상소에는 당시 불교계의 부패상이 담겨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절에 하사된 토지의 도조나 노비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귀족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일반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등 상소문에 열거된 불교계의 부패상은 부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또한 고려의 어느 시기, 귀족 세력의 재산 도피처로 절이 이용되었다는 점 또한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맥락 중 하나이다.

한편 불교가 핍박 받았던 것은 비단 조선시대의 일만이 아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고려 무신정변으로 권력이 무신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종(敎宗) 세력들이 정권에 반기를 들게 되는데, 승려들의 무력 대항은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고, 일련의 한 사건으로 인해 고려 희종은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기도 한다. 결국 오랜 세월 맥을 이어온 교종 세력은 무신정권에 의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불교사의 어두운 면 중 하나이다.

한국불교사의 거의 모든 장면 망라

지난 2002년 출간되어 현재는 절판된 〈역사 속의 한국불교〉를 수정 보완하고 새 옷을 입혀 다시 출간한 이 책은 역사 교양서 중 거의 유일하게 불교사를 조명한 도서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1,600여 년 역사를 편년체의 시간순으로 서술한다.

또한 불교의 명과 암을 꾸밈없이 제시하면서 한국사와 따로 떼어 놓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 역사의 실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 책서 발견돼야 할 또 다른 점은 저자가 그동안 모든 방면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온 신념이자 역사관이 전체 흐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대승불교의 '중생 제도'이다. 독자들은 그동안 민중의 삶에 깊은 애착을 지녀온 저자의 역사관으로부터 불교사 속의 명과 암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머리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과거를 반성하는 자료의 하나로 쓰였다"

이 말은 저자가 그동안 간직한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말이다. 화쟁과 총화 등 찬란한 정신 유산을 이어오며 지금까지도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한국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고 진심어린 조언이다.

이제 불교사를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일 시간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근인(近因)을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따로 떼어 놓게 된다면 우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일에 이 책은 매우 유용한 교양서가 되어 줄 것이다.

세계적 영적 지도자 틱낫한 스님의 명상 주제 7가지



삶의 지혜

틱낫한 스님 지음/성안당 펴냄/1만 4800원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밤낮으로 이 질문들에 노출돼 있으며 현실서 우리는 호기심도 기쁨도 두려움도 없이 고령화와 죽음에 직면해 있다.

〈삶의 지혜〉에서 틱낫한 스님은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답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술을 보여준다.

틱낫한 스님은 2001년도에 〈화(Anger)〉라는 저서가 한국서 100만부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명상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터이'는 베트남어로 스승을 칭하는 단어로 틱낫한은 '터이'로 불린다. 2017년에는 'Walk with me'라는 틱낫한 스님의 장편 다큐 필름이 촬영돼 미국서는 개봉됐는데 여기에 셜록의 주연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틱낫한 스님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조국을 떠나 프랑스 남서부에 명상 수행 공동체인 플럼빌리지를 건립한 바 있으며, 그가 설파하는 명상의 대명제인 'mindfulness('마음 다함')'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佛法의 본질 담은 에세이
우리 삶에 영적인 차원 제공

틱낫한 스님은 처음으로 우리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계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7가지 변형 명상을 제공한다. 이 책은 그가 2014년 11월 여든여덟이 되는 해 예기치 못한 뇌졸중이 닥쳐 갑자기 입원하기 전 '터이'의 가르침을 받은 수도승들이 편집에 참여했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토대로 이 7가지 명상을 통해 행복하고 평화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 가르침과 틱낫한 스님의 본질을 담은 에세이 〈삶의 지혜(The Art of Living)〉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차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인생을 피하거나 이 세상 바깥의 행복의 장소에 머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과 이해와 사랑이 생겨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저자는 이것을 '마음 다함의 삶'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분명한 문체로 설명하는 틱낫한 스님의 마음 다함의 삶이란 무엇인지 책장을 열어 확인해 보자.

김주일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